

EU 식육산업 전망과 차기 공통농업정책 ~2021년 EU 농업관측회의에서~1)

(원저자) 農畜産業振興機構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허 덕*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EU 농업관측회의 중에서 2031년까지 식육 중장기 전망 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 병행 사용)에 따른 육류 수급에 대한 영향, EU 수뇌부에서 이야기된 차기 공통농업정책(CAP)²⁾의 요점을 현지 조사를 토대로 하여 그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위원회에 의한 분석의 기초가 된 경제지표 등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소개한 바 있다³⁾.

또한, 이 글 중의 환율은 엔화-유로의 경우 미즈비시 UFJ리서치&컨설팅 주식회사 ‘월말·중순 평균 환율’의 2022년 2월 말 TTS시세인 1유로=130.84엔을 그리고 원화-유로 환율은 ‘환율플러스 앱’을 이용하여 같은 날짜 기준 환율인 1유로=1,347원을 사용하였다.

1) 이 글은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EUの食肉産業の展望と次期共通農業政策 ~ 2021年 EU農業観測会議から ~’,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2年4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2090.html)의 내용을 중심으로 번역·보완·수정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편집인

2) EU의 차기 공통농업정책에 관한 논의 동향에 대해서는 임송수, ‘특집: EU 농업정책」(제1편)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동향과 전환기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터 ‘EU 농업정책 제5편-EU의 농장에서 포크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y)’,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김태련, 허 덕,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1)-영국의 EU 탈퇴 후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2)-MMB 및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 유럽 우유·유제품 수급·무역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차기 CAP(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김태련, 허 덕,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4)- 프랑스 새로운 농업·식품법의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역자 주)

3) 農畜産業振興機構, ‘『パンデミック下でも堅調なEUの乳製品需要 - 2021年EU農業観測会議を中心に -』, 『畜産の情報』 2022년 3월호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2025.html) 또는 허 덕, ‘코로나19가 각국 낙농산업에 미친 영향 (세계, 일본, 미국, EU, 뉴질랜드, 중국)’,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2호(2022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18181/board/newdata/view/wr_id/6510)의 EU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역자 주)

2. 식육 관련 산업의 개황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EU 전체(27개국 및 영국을 포함. 2016년 기준)의 소, 돼지, 닭, 기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생산자는 총 252만 호(혼합 농가 제외)였다⁴⁾. 축산업이 EU 전체의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 정도이며, 생산부문에서만 4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020년 EU(27개국)의 주요 축산 개요는 이하와 같다. 모든 축종에서 영국으로의 수출을 중심으로 일정량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 소 사육 마릿수는 7,650만 마리, 쇠고기 생산량은 715만 톤(수출용 비율은 8%)
- 돼지 사육 마릿수는 1억 4,600만 마리, 돼지고기 생산량은 2,330만 톤(동 21%)
- 가금육 생산량은 1,370만 톤(동 17%)

(참고: 2020년 기준 일본 축산의 개요)

- 소 사육 마릿수는 382만 마리, 쇠고기 생산량은 46만 톤
- 돼지 사육 마릿수는 931만 마리, 돼지고기 생산량은 128만 톤
- 닭고기 생산량은 155만 톤

(참고: 2020년 기준 한국 축산의 개요)

- 소 사육 마릿수는 한육우 339.5만 마리, 젖소 41만 마리, 총 380.5만 마리, 쇠고기 생산량은 24.9만 톤
-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07.8만 두, 돼지고기 생산량은 109.7만 톤
- 닭고기 생산량은 64.7만 톤

세계에서 차지하는 EU의 식육 생산량과 수출량 비율은 <표 1>과 같다.

쇠고기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수출량 비중은 적다. 하지만,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수출량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는 세계 수출량 비중이 40%를 넘는 등 EU는 중요한 돼지고기 공급 지역이다.

표 1 세계시장에서 점하는 EU의 점유율(2020년)

	생산량	수출량
쇠고기	12%	6%
돼지고기	24%	41%
닭고기	11%	16%

주: 주요국의 집계결과임.

자료: USDA FAS 2022.1.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EUの食肉産業の展望と次期共通農業政策 ~ 2021年EU農業観測会議から ~',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2年 4月号에서 재인용

4) 같은 해인 2016년 2월 1일 기준으로 일본의 젖소, 육용우, 돼지, 브로일러, 산란계 생산자는 총 7만 8,500호(농림수산성 '축산통계'). 한국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9만 5,233호였다. 그 중 한육우 89,878호, 젖소 5,354호, 돼지 4,574호, 닭 2,993호, 오리 566호였다.(통계청, '가축통계')

3. 식육 수급 전망

유럽위원회는 농축산업 전체에 대해 전망하며, 특히 축산의 경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가 식육 생산 및 소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번 중장기 전망의 최종 년도인 2031년을 앞두고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육 마릿수를 줄이는 친환경 급식 방법이 확산됨에 따라 생산량 감소, 동물복지 규제 강화 등에 의한 생체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하에서는 2031년까지의 전망 및 2021년과 2022년의 생산·수출 가격 동향에 대해서 품목별로 소개한다.

또한 이 장의 내용은 특히 언급이 없는 한 유럽위원회에 의한 분석 내용이다.

(1) 쇠고기 수급 동향

소비량이 감소 경향에 있다는 점과 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의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의 엄격화 등으로 사육 마릿수는 감소 경향으로 추이하고 있다. 1마리당 도체중(屠體重)은 근소한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유기 쇠고기 생산 증가에 따라 도체중 증가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생산량은 감소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는 당분간 수출 시장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음에 따라 수출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주요 수출 대상국인 영국이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여, 그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생우 수출은 주요 수출 대상국인 터키에서의 수요 부진과 생체의 장거리 수송에 대한 동물복지 상의 우려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1년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하여 전년과 비슷한 714만 톤, 수출량은 전년 대비 2.0% 늘어난 60만 톤이 되었다(표 2).

2022년 쇠고기 생산량은 축군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 줄어든 709만 톤, 수출량도 전년대비 0.6% 줄어든 60만 톤으로 예상된다.

2031년에는 2021년보다 생산량은 7.5% 감소한 661만 톤, 수출량은 4.5% 늘어난 63만 톤으로 예상된다.

가격에 대해서는 2021년에는 전년 대비 9.8% 오른 1킬로그램 당 3.88유로(508엔, 5,226.4원),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6% 오른 1킬로그램 당 3.98유로(521엔, 5,361.1원), 2031년에는 2021년 대비 1.7% 떨어진 1킬로그램 당 3.82유로(500엔, 5,145.5원)로 전망된다.

표 2 쇠고기 수급 전망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31년	21/20년	22/21년	31/21년
번식암소두수(백만 두)	32.2	32.2	32.2	31.9	31.5	31.3	31.2	30.9	30.7	29.9	-0.8%	-0.8%	-6.2%
그 중 젖소	21.5	21.4	21.4	21.2	20.8	20.5	20.3	20.1	20.0	18.9	-0.8%	-0.9%	-6.3%
그 중 육용우	10.7	10.8	10.8	10.8	10.7	10.7	10.8	10.8	10.7	10.1	-0.6%	-0.6%	-6.1%
생산량(천 톤)	7,304	6,943	7,195	7,221	7,330	7,209	7,151	7,139	7,085	6,605	-0.2%	-0.8%	-7.5%
수입량	346	330	351	348	371	336	307	322	358	374	5.0%	11.3%	16.2%
수출량	493	506	585	613	595	577	592	604	600	631	2.0%	-0.6%	4.5%
소비량(천톤)	7,036	6,618	6,735	6,711	6,863	6,785	6,634	6,620	6,598	6,187	-0.2%	-0.3%	-6.5%
1인당(kg)	11.2	10.4	10.6	10.5	10.7	10.6	10.4	10.3	10.3	9.7	-0.3%	-0.5%	-6.1%
역내시장가격(유로/톤)	3,205	3,732	3,661	3,788	3,784	3,586	3,535	3,880	3,981	3,815	9.8%	2.6%	-1.7%

주 1: 2021년은 잠정치, 2022년 및 2031년은 전망치

2: 송아지고기 포함. 지육중량 기준

3: 1인당 소비량은 소매중량 환산. 지육중량을 소매중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계수로써 0.7을 곱함.

자료: 유럽위원회, 「EU Agricultural Outlook, for markets, Income and Environment, 2021-31」에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EUの食肉産業の展
望と次期共通農業政策 ~ 2021年EU農業観測会議から ~’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2年 4月号
에서 재인용

(2) 돼지고기 수급 동향

EU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중국 등 수출 수요 호황에 힘입어 과거 10년간 연 0.6%의 성장을 하여 왔다. 같은 기간 EU 역내 수요는 제자리걸음을 하여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 의식 고조로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 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Africa Swine Fever)이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국내에서 돼지고기 생산량 회복으로 수입량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점 등으로 인해 EU의 돼지고기 생산량과 수출량은 함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 늘어난 2,370만 톤, 수출량은 전년 대비 6.0% 늘어난 523만 톤이 되었다(표 3). 2022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2,360만 톤, 수출량도 전년대비 3.8% 줄어든 503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2031년에는 2021년보다 생산량은 9.1% 감소한 2,150만 톤, 수출량은 25.0% 줄어든 393만 톤으로 전망된다.

가격에 대해서는 2021년에는 전년 대비 6.0% 떨어진 1킬로그램 당 1.51유로(198엔, 2,034원),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3% 떨어진 1킬로그램 당 1.38유로(181엔, 1,859원), 2031년에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1.51유로(198엔, 2,034원)로 전망된다.

표 3 돼지고기 수급 전망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31년	21/20년	22/21년	31/21년
생산량(천 톤)	22,177	22,549	22,984	22,802	23,205	23,039	23,281	23,680	23,559	21,514	1.7%	-0.9%	-9.1%
수입량	158	143	152	154	167	162	158	159	182	174	1.0%	14.1%	9.2%
수출량	2,808	3,144	3,636	3,498	3,580	4,177	4,934	5,220	5,031	3,925	6.0%	-3.8%	-25.0%
소비량(천톤)	19,456	19,536	19,404	19,414	19,743	18,981	18,484	18,591	18,694	17,738	0.6%	0.6%	-4.6%
1인당(kg)	34.4	34.3	34.0	33.9	34.4	33.0	32.2	32.3	32.5	31.0	0.5%	0.4%	-4.1%
역내시장가격(유로/톤)	1,396	1,389	1,458	1,603	1,414	1,691	1,601	1,505	1,381	1,505	-6.0%	-8.3%	0.0%

주 1: 2021년은 잠정치, 2022년 및 2031년은 전망치

2: 지육중량 기준

3: 1인당 소비량은 소매중량 환산. 지육중량을 소매중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계수로써 0.78을 곱함.

자료: 유럽위원회, 「EU Agricultural Outlook, for markets, Income and Environment, 2021-31」에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EUの食肉産業の展望と次期共通農業政策」～2021年EU農業観測会議から～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2年 4月号에서 재인용

(3) 가금 육류 수급 동향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닭고기 등 가금육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종교적인 제약이 적다는 점 등 때문에 1인당 가금육류 소비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량은 역내에서 수요가 적은 닭날개, 닭다리, 내장을 주체로 그동안 호조에 추이 하여 왔다. 그러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서 돼지고기 공급 증가에 따라 닭고기 수입 물량을 줄이고 있으며, EU 역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⁵⁾) 발생에 따라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칠면조·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크게 구분된다. 이 중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발생시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HPAI에 감염된 닭이나 칠면조는 급성의 호흡기 증

이와 더불어 브라질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당분간은 가금 육류의 수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의 가금육 생산량은 전년 대비 0.9% 줄어든 1,355만 톤, 수출량은 전년 대비 5.0% 감소한 222만 톤이 되었다(표 4).

2022년의 가금육 생산량은 전년 대비 0.9% 늘어난 1,367만 톤, 한편 수출량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221만 톤으로 예상된다.

2031년에는 2021년보다 생산량은 4.3% 늘어난 1,414만 톤, 수출량은 6.9% 늘어난 238만 톤으로 전망된다.

가격에 대해서는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7% 떨어진 1킬로그램 당 1.84유로(241엔, 2,748.5원), 2022년에는 전년 대비 6.3% 오른 1킬로그램 당 1.96유로(256엔, 2,640원), 2031년에는 2021년 대비 8.5% 오른 2.00유로(262엔, 2,694원)로 전망된다.

표 3 가금육 수급 전망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31년	21/20년	22/21년	31/21년
생산량(천 톤)	10,600	12,101	12,703	12,745	13,291	13,541	13,669	13,550	13,670	14,136	-0.9%	0.9%	4.3%
수입량	9841	903	914	849	836	849	709	709	722	826	0.0%	1.8%	16.6%
수출량	1,653	2,001	2,208	2,241	2,326	2,499	2,341	2,224	2,206	2,377	-5.0%	-0.8%	6.9%
소비량(천톤)	9,775	11,001	11,409	11,354	11,804	11,834	12,000	12,100	12,240	12,585	0.8%	1.2%	4.0%
1인당(kg)	19.5	21.8	22.5	22.4	23.2	23.2	23.6	23.7	24.0	24.8	0.7%	1.0%	4.5%
역내시장가격(유로/톤)	1,824	1,942	1,856	1,894	1,921	1,932	1,875	1,843	1,900	2,000	-1.7%	6.3%	83.5%

주 1: 2021년은 잠정치, 2022년 및 2031년은 전망치

2: 가식처리중량 기준

3: 1인당 소비량은 소매중량 환산. 지육중량을 소매중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계수로써 0.88을 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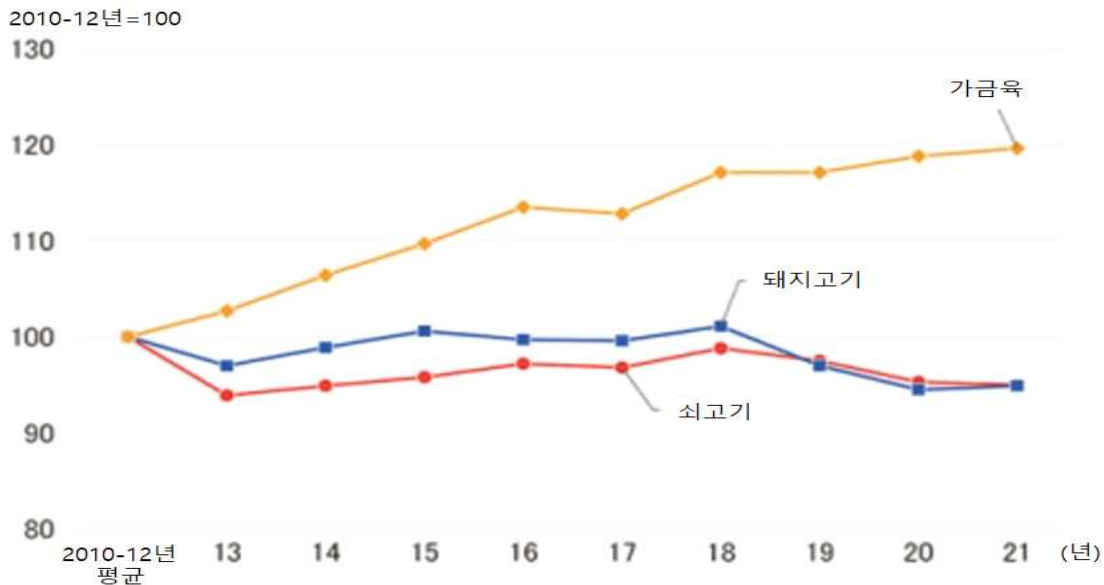
자료: 유럽위원회, 「EU Agricultural Outlook, for markets, Income and Environment, 2021-31」에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EUの食肉産業の展望と次期共通農業政策」2021年EU農業観測会議から,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2年 4月号에서 재인용.

상을 보이면서 100%에 가까운 폐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지만 오리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혈청아형(subtype)이 매우 많고 변이가 쉽게 일어나며, 자연생태계의 야생조류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분포되어 있으면서도 이들에게는 감염되어도 뚜렷한 증상이 없이 경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방역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가축전염병중 하나이다.(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란’, https://www.qia.go.kr/animal/prevent/ani_birdflu.jsp)

4. COVID-19에 따른 육류 수급 상황

유제품과 마찬가지로, 2020년 3월 COVID-19의 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 Pandemic⁶⁾)으로 외식 영업이 제한·폐쇄되었다. 그러면서 육류 수급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였다. 유럽위원회의 데이터에 의한 시산 결과, 1인당 식육 소비량 추이는 <그림 1> 및 <표 5>와 같다.

그림 1 2010-12년 3개년 평균을 100으로 할 때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자료: 유럽위원회, 「EU Agricultural Outlook, for markets, Income and Environment, 2021-31」에서 농축 산업진흥기구 작성.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EUの食肉産業の展望と次期 共通農業政策」2021年EU農業観測会議から」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2年 4月号에서 재인용.

6) 팬데믹(pandemic).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정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정보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대유행)’이라 한다. 그리스어로 ‘pan’은 ‘모두’, ‘demic’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감염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2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위원회에서는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우리말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선정하였다. 전염병 정보단계 중 1단계는 동물 사이에 한정된 전염으로 사람에게서는 안전한 상태, 2단계는 동물 사이에서 전염되다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전염된 상태, 3단계는 사람들 사이의 전염이 증가한 상태이다. 4단계는 사람들 사이의 전염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여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상태, 5단계는 전염이 널리 퍼져 세계 동일 권역(대륙)의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는 상태로 전염병의 대유행이 임박하였다는 의미이다. 6단계는 제5단계를 넘어 다른 권역의 국가에서도 추가로 전염이 발생한 상태로 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전염병의 대유행’ 즉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의미이다. 전염병 정보 1~3단계에서는 주로 대비책을 준비하고, 4단계부터는 각국에서 여행자제 조치 등의 구체적인 전염병 확산 방지 지침을 내리고 철저한 예방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가장 악명 높았던 팬데믹은 중세 유럽 인구 1/3의 생명을 앗아간 흑사병이다. 20세기에는 1918년 스페인독감(사망자 약 2,000~5,000만 명 추정), 1957년 아시아독감(사망자 약 100만 명 추정), 1968년 홍콩독감(사망자 약 80만 명 추정)을 팬데믹으로 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9년 6월 신종플루로 불린 인플루엔자 A(H1N1)와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바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AC), <https://terms.naver.com/>)

표 5 육류의 1인당 소비량 추이

(단위: kg)

	2010-12년 평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쇠고기	10.9	10.2	10.3	10.4	10.6	10.5	10.7	10.6	10.4	10.3
돼지고기	34.1	33.0	33.7	34.3	34.0	33.9	34.4	33.0	32.2	32.3
가금육	19.8	20.4	21.1	21.85	22.5	22.4	23.2	23.2	23.6	23.7

주: 2010-12년은 3개년 단순 평균

자료: 유럽위원회, 「EU Agricultural Outlook, for markets, Income and Environment, 2021-31」에서 농축
산업진흥기구 작성.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EUの食肉産業の展望と次期
共通農業政策」2021年EU農業観測会議から」,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2年 4月号에서 재인용.

쇠고기에 대해서는 팬데믹에 따른 록다운(Lock-down⁷⁾)으로 외식 수요를 잃은 한편, 가정 내 소비는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요리에 많이 쓰이는 다진 고기 등 값싼 쇠고기 소비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되는 고급 부위 소비는 감소하였다.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는 2020년 5월 4일 쇠고기 민간 재고 조치(PSA) 실시를 발표하였다⁸⁾. 이 조치는 최대 150일간 이용이 인정되었는데, 2020년 5월 7일~7월 8일 접수 기간 중에 1,959톤의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 외식 수요가 점차 회복되었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고급 부위 수요는 크게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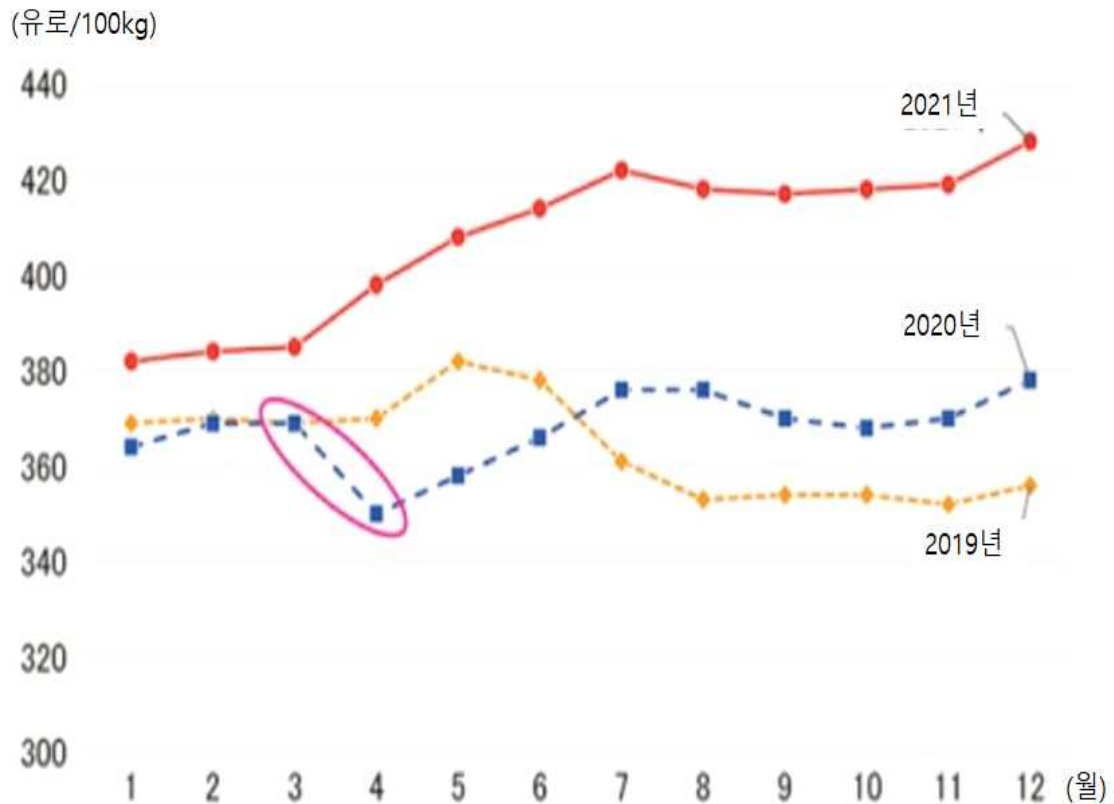
한편, 젓소 사육 마릿수가 줄어들었고, 영국의 EU 탈퇴 후 EU가 정한 위생조치에 대한 영국 측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으며, EU산에 비해서 가격 면에서 우위인 남미

7) 록다운(Lockdown)은 움직임·행동에 대한 제재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 사람들의 이동을 제재하는 ‘이동제한령’, ‘봉쇄령’을 말한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들의 외출 제한은 물론 사업장들에 대한 영업 중단, 교육기관의 휴교령 등 대대적인 락다운 조치를 시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2020년 3월 22일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 중단 권고 >재택근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돼 4월 19일까지(한 차례 연장) 시행됐고,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16일간 시행된 바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비대면·비접촉을 지향하는 ‘언택트(Untact)’가 부상했다. 코로나19 초반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온라인 구매나 배달주문 증가 등의 언택트 소비가 주를 이뤘으나, 코로나19가 쉽사리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무관중 스포츠 경기와 온라인 패션쇼·콘서트 등 점차 산업 전반으로 확산됐다. 한편 최고점에 이르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는 기세를 보이자, 유럽은 점진적으로 록다운(봉쇄조치)을 해제하고 일본도 긴급사태 선포를 일부 해제하는 등 경제활동 재개 방침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역시 5월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3월 22일~5월 5일까지)보다 그 방침을 완화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시행했던 각종 봉쇄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상황을 뜻하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가 전 인류의 화두로 부상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8) 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委員会,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追加対策を採択. 乳製品, 牛肉などの民間在庫補助(PSA)を5月7日から. チーズは最大10万トン市場隔離へ’, 『畜産の情報』海外情報(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2.html)를 참고하기 바란다.(원저자 주). 또는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런,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4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EU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 -그린 리커버리로 재검토되는 농업의 기본방향-’,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2호(2021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란다.(역자 주)

산 쇠고기가 중국에 유도되고 있어 저렴한 쇠고기의 EU에 대한 공급량이 감소하였다. 반면, 사료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쇠고기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그림 2), EU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2 쇠고기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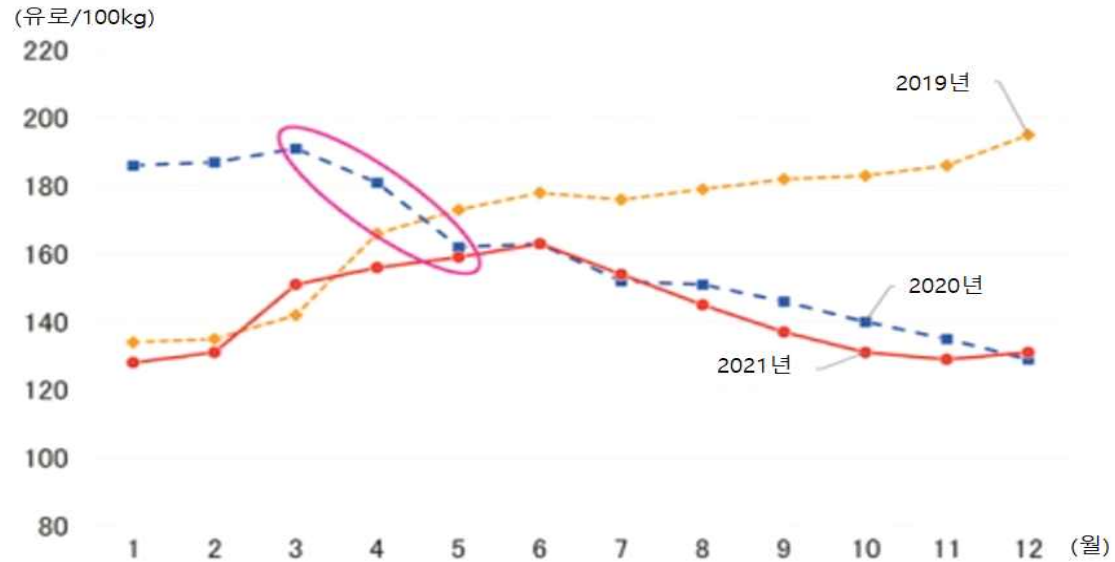
주: 지육가격(A/C/Z)

자료: DG Agri Monthly Market Price에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EUの食肉産業の展望と次期共通農業政策 ~ 2021年EU農業観測会議から ~’,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2年 4月号에서 재인용.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 등으로 2018년 이후 수출 수요가 호조를 보였다. 이에 생산량도 증가하면서도 역내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그 결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EU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대상국의 규제 등으로 공급이 과잉되어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때문에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감소하였고,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하여 생산자에게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그림 3).

그림 3 돼지고기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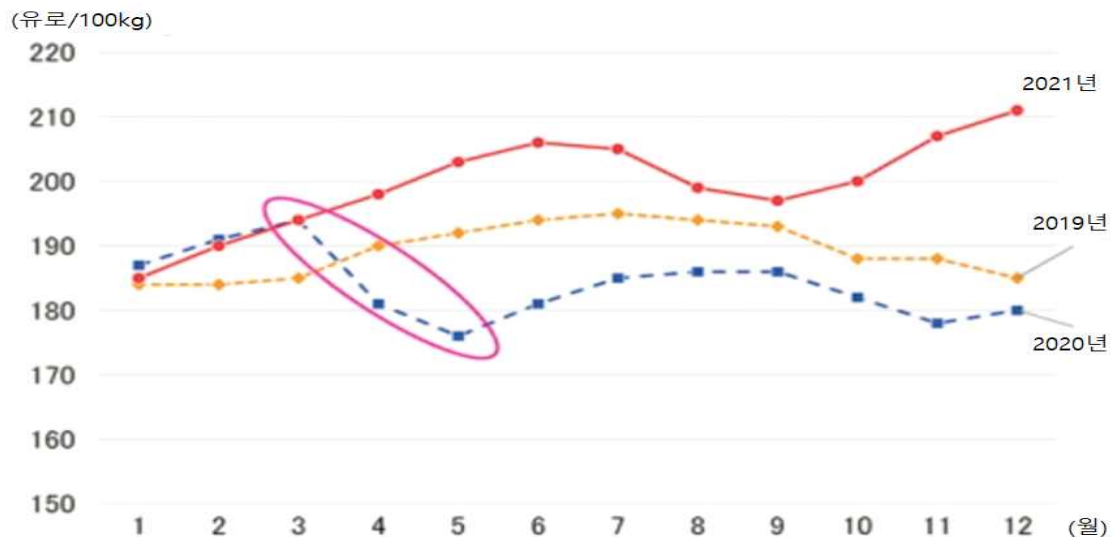


주: 지육가격(클래스 E)

자료: DG Agri Monthly Market Price에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EUの食肉産業の展望と次期共通農業政策 ~ 2021年EU農業観測会議から ~’,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2年 4月号에서 재인용.

가금육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 등으로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소비가 많아지고 있으며, 1인당 가금육류 소비량이 증가 경향을 보여 왔다. 또 닭고기 가격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그림 4).

그림 4 가금육 도매가격 추이



주: 내장 제거 가격

자료: DG Agri Monthly Market Price에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EUの食肉産業の展望と次期共通農業政策 ~ 2021年EU農業観測会議から ~’,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2年 4月号에서 재인용.

5. 농업담당위원의 발언으로 본 차기 공통농업정책의 특색

농업관측회의 개최에 앞서 유럽위원회의 보이체호프스키 농업담당위원의 차기 공통농업정책(차기 CAP: 2023~27년)의 특색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다(사진 1). 이하에서는 그 개요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보이체호프스키 위원은 유럽위원회의 대표로서 회의 직전인 12월 2일 차기 CAP가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와 합의에 이르렀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EU에서 전개하고 있는 농업이 친환경적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차기 CAP는 ‘보다 공평’하고 ‘보다 환경 친화적’이며 ‘보다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진 1 차기 CAP 관련 법안의 승인문서를 제시하는 보이체호프스키 농업담당위원



(1) 보다 공평하게

집약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업에 있어서 중소규모 가족경영 농가, 특히 축산의 가족경영이 탈락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들어 향후 그들 농가가 탈락하지 않거나, 혹은 생산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아무도 뒤쳐지지 않도록(No one left behind)’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였다.

이에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서 차기 CAP에서 강화 또는 도입이 예정된 재분배 지불, 에코 스킴(Eco Scheme⁹⁾)을 꼽았다. 또 동물복지와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중소규모 경영에 있어서 이용하기 쉬운 것이라는 점을 소개하였다.

9) 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委員会, 『エコ・スキーム』として有機農業, 総合的病害虫・雑草管理(IPM), アグロ・エコロジー, アニマルウェルフェアなどの取組みを提案(EU)」’,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82.html) 를 참조하기 바란다.(원저자 주)

한편, 대규모 농가도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에코 스킴의 대상이 되는 정밀 농업과 탄소 농업¹⁰⁾이 대규모 농가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것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회원국별 온실가스 배출량, 농약, 화학비료, 항생물질 사용량, 유기농업의 진전 등을 각 회원국의 전략적 계획을 평가할 때 고려하겠다고 말하였다.

(2) 보다 친환경적으로

또한 그는 “여론은 차기 CAP이 더욱 환경 친화적인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 며, “지속 가능한 농업, 아그로에콜로지(Agro-ecology, 농업생태학¹¹⁾), 토양보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물 관리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농업은 생산성을 낮추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이나 동물 복지에 대한 자금 원조 등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농업 생산을 재개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고 밝혔다. 또 “탄소농업이나 정밀농업도 생산 자재 소비량 절감과 배출물 감소에 기여하면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 말하였다.

(3) 보다 효과적으로

그는 또한 차기 CAP은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²⁾. 그는 “차기 CAP으로 지출이 예정된 3,870억 유로(약 51조 엔, 521조 2,890억 원)는 생산

10) 마찬가지로 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委員会, 『エコ・スキーム』として有機農業, 総合的病害虫・雑草管理(IPM), アグロ・エコロジー, アニマルウェルフェアなどの取組みを提案(EU)」’,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82.html) 를 참조하기 바란다.(원저자 주)

11) 농업생태학은 OECD에 의해 “농작물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정의된다. Dalgaard 외 연구진은 농업 시스템 내에서 식물, 동물, 인간 및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것으로 농경학을 가리킨다. 프랜시스 외 연구진도 이 정의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식량을 재배하는 것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농업생태학은 자연과 생계의 공동 이익을 위해 농업과 지역사회를 자연적 과정으로 조화시키려는 총체적 접근법이다. 농업생태학은 농학, 생태학, 환경과학,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 등의 과학을 포함한 본질적으로 다학제적인 것이다. Agroecology는 농업 관행의 지방 사회, 새로운 생산 방법, 또는 문화적 요소들 농업 관행을 결정을 개발하기 위해 경제적 제약 조건에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사회 과학을 사용하는 것과 토양의 성질과 plant-insect 상호 작용 같은 생태계의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과학을 사용한다. 연구된 농경 시스템의 시스템 특성에는 생산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 및 형평성이 포함될 수 있다. 농업생태학은 한 가지 척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개별 유전자에서 전체 모집단에 이르기까지, 또는 주어진 농장의 단일 분야에서부터 글로벌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Wojtkowski는 자연 생태계와 자연 생태계의 생태계를 구분하는데, 자연 생태계에서 경제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반면, 농업 생태학에서 계획되고 관리되는 환경 내의 유기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며, 따라서 경제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통제하는 주요 통치 세력이다. e 필드 Wojtkowski는 그의 2002년 저서에서 농업, 임업, 농업에 있어서 농경학의 적용에 대해 논하고 있다. (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Agroecology>)

12) 실제 효과의 유무에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CAP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원저자 주)

자나 사회 전체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농가에 적정한 수입을 가져올 경제적 효과가 필요하다.” 고 말하였다. 나아가 “기후, 천연자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익을 초래하는 환경적인 성과와 농촌의 발전이라는 사회적인 효과도 필요하다.” 고 하였다.

(4) 위원 발언 정리

위원은 차기 CAP은 중소규모의 생산자 지원에 대해 과제로 꼽으면서도, 대규모 생산자도 배려하여 보다 환경에 배려한 내용임을 밝혔다. 또, 회원국이 실시할 때 각각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국의 실정을 반영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꼽았다.

(5) 회복력에 대한 생산자의 발표

이 회의에서는 ‘회복력 있는 EU 농업 식량 시스템에 관한 생산자의 시점’이라는 제목의 세션에서 두 명의 생산자가 발표를 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인 헛타 씨(사진 2)는 유기농 채소 생산자로 오스트리아 서부 지역에서 30헥타르의 농지에서 20명을 고용하여 생산을 하고 있다. 그는 “고객과의 연결을 소중히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¹³)을 이용하여 중간 유통을 줄이고 매출 향상으로 회복력 있는 농업 실현에 연결된다.” 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클라우드 펀딩¹⁴에 의해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을 모아, 이에 협력

13)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는 창조경제의 기반이다. 특히 최근에는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물 인터넷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연결, 사물과 사물의 연결도 가능하게 한다. 창조의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개인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보완해야 진정한 창조경제를 만들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창조경제정책의 이해, 2014. 4. 15., 김대호, <https://terms.naver.com/>)

14)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후원, 기부,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조달(funding)을 받는다는 의미로, 자금이 필요한 개인, 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소셜 펀딩이라고도 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대출형, 투자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출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P2P 금융(개인간 직거래 방식 금융 서비스)의 일종이다. 자금 여유가 있는 개인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음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돈을 빌리는 개인 또는 법인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금융권을 통하지 않아도 쉽고 간단하게 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기 어려운 이들이 주로 찾는다. 투자형은 신생기업이나 벤처기업, 개발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출형과 마찬가지로 자금수요자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지분 획득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한편, 후원형, 기부형은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펀딩이다. 후원형은 주로 창작활동, 문화예술상품, 사회공익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영화·연극·음반 제작, 전시회, 콘서트 등의 공연, 스포츠 행사, 그리고 다양한 사회공익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후원하고 공연티켓, 시제품, 기념품을 받거나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식의 작은 보답을 받게 된다. 기부형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순수하게

한 자금 제공자에게 우량한 유기농 채소를 반송하기로 하는 등 투자액에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 많은 나라의 주문에 응할 수 있도록 각국의 언어와 배송 수단, 규제 등에 대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고객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한편, 두 번째 발표자인 오디 씨(사진 3)는 EU 역내에서는 소규모 농가로 분류되는 경영 규모 1.3헥타르의 프랑스의 야채 농가이다. 오디 씨는 “중소규모 생산자가 식량을 제공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의 생산자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 충분한 수입을 올리도록 정부가 효과적인 시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호소하였다.

또, “영농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고립되지 않도록 생산자를 돕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며, 트랙터 고장 시 인근 생산자의 트랙터를 사용하고 수리하는데 도움을 받은 것이나, 생산자 간에서 개최하는 강습회에서 기술 향상을 도모한 것 등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들 경험으로부터 “반드시 최신 기술이 경영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생산자가 기댈 수 있는 소규모 생산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회복력 있는 농업이다.” 라는 주장을 폈다.



기부하는 형태이다. 클라우드 펀딩은 주로 인터넷의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금자들이 모금 취지, 목표금액, 모금기간, 투자보상내용 등을 게시하고 이를 홍보하는 동영상 등을 올리면 다수의 개인들이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를 골라 중개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내고, 모금이 성공하면 중개사이트는 일정의 수수료를 떼 다음 모금자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모금기간 내에 목표액이 채워지지 않으면 모금참여자의 돈은 모두 돌려준다. 클라우드 펀딩은 2000년대 이후 출현하였으며 대표적 업체로는 후원형 펀딩 사이트로 가장 유명한 미국의 킥스타터(Kickstarter)와 인디고고(Indiegogo), 영국의 비영리(공익기부형) 펀딩 사이트인 저스트기빙(Just Giving), P2P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조파(Zopa)와 미국의 프로스퍼(Prosper)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 미국의 신생 기업 페블테크놀로지스(Pebble Tech.)의 펀딩이 꼽힌다. 기존 금융권의 자금 유입이 어려웠던 페블테크놀로지스는 손목에 차는 스마트폰인 '페블스마트워치'의 생산자금 모금을 위해 킥스타터에서 1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을 진행했다. 모금 시작 후 단 2시간 만에 목표액을 넘겼고 최종모금액은 무려 1,00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였는데, 회사는 이 투자금으로 제품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AC), <https://terms.naver.com/>)

6. 멧음말

이번 EU 농업관측회의에서는 EU의 유제품 및 고기에 대한 중장기 수급 전망이 나왔다. 이 전망에 대해서는 차기 CAP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도, 원유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치즈를 비롯한 버터 등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돼지에 대해서는 생산량, 수출량 함께 감소하고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과 관련한 유제품에 대해서는 환경 규제 강화로 기존의 주요 생산국의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비교적 생산 여력이 있는 중부 유럽과 동유럽 국가의 중요성이 높아져 갈수도 있다.

또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수출 가능 지역이 한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과 사료·에너지 가격 상승,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등과 같은 비용 상승이 어떻게 가격에 전가될지,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침입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 등 EU와 각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유럽위원회는 2031년을 향해서 가금육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쇠고기나 돼지고기 생산량은 감소, 특히 돼지고기 수출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는 일시적으로 육류 가격을 하락시켰지만, 이후에는 Brexit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장기적인 생산·소비 동향의 변화 등의 요인도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COVID-19의 유행의 영향은 유제품 생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특히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외식산업을 폐쇄, 회복 지연과 수출 수요 감소에 따른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공통농업정책이 ‘아무도 뒤쳐지지 않도록’을 표어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유익한 정책이 된다고 설명하는 반면, 현장에서는 유럽위원회의 의도하는 방향성과는 다른 의견도 있었다.


또,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으로의 이행이나 노동력 확보, 각종 생산 자재 가격 상승, 중국 수출 증감 등 수급을 좌우하는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번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국제 정세가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나라 일본의 식량 안전 보장을 향해 주요 수입처인 EU의 지속적인 정보 수집·제공이 중요하다.

부록 1 벨기에산 쇠고기 도축을 고집하는 소매 체인

Dufrais는 벨기에 국내 대형 슈퍼마켓 안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현재는 82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부록 1 사진 1, 2).

이 회사는 정육뿐만 아니라 고기를 사용한 반찬이나 도시락을 개발·판매하고 있다(부록 1 사진 3). 방문지의 점포에는 냉장, 냉동 창고 외에도 각종 가공 장비와 조리 도구가 준비하다(부록 1 사진 4). 슈퍼의 점원이 아니라 정육점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의 노하우를 살리는 것이 이 회사의 강점이다.

부록 1 사진 1 점내 판매장 전경	부록 1 사진 2 식육 매대
	
부록 1 사진 3 도시락류	부록 1 사진 4 점내 조리 스페이스
	

이 회사는 벨기에산 식육에 초점을 두고, 쇠고기에 대해서는 자국 내의 농가에서 직접 육우를 구입하여 위탁 처리·가공하고 있다. 구입 가격은 1년 이상 전에 결정하여 농가에서 출하되는 육우는 전수 사들이기로 하였다.

또 수소뿐만 아니라, 출하까지의 사육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암소도 높은 가격에 사기도 하여 생산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암소고기는 수소와 음식 맛이 다르다며, 평판이 좋아 차별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회사는 사육하는 현장이나 주는 사료 등도 모두 점포가 있는 슈퍼마켓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물 애호와 환경 보호에 민감한 슈퍼마켓과 계약을 맺고 있다.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정육점에서 판매를 실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이다.

팬데믹 전후로 이 회사 매출 등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한다. 한편, 특징적인 움직임으로는 유럽위원회가 Farm to Fork(F2F) 전략¹⁵⁾으로 유통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판매 가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유행 직후에는 생산자가 슈퍼마켓에서 자신들이 생산한 가축의 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대응이 성행하던 것에 대해, 시작 초기에는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나,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부진해졌다는 점을 들었다.

판매 부진이 된 요인으로서 계속 판매에 있어 지식의 결여, 생각보다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벨기에의 고기 기호성 변화로 많은 식육은 스테이크 등의 그릴에서 조리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진 고기의 인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15)F2F 전략에 대해서는 農畜産業振興機構, alic 세미나-(2020년12월14日開催), 「EU의 ‘Farm to Fork (農場から食卓まで)’ 戦略について - 2030年に向けて, 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を最優先課題とするEU農業・食品部門-」, 農畜産業振興機構(<https://www.alic.go.jp/content/001184979.pdf>)을 그리고 Farm to Fork와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해서는 임송수, ‘[특집: EU 농업정책] 제2편-EU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와 성과 추이’,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 -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農畜産業振興機構, 農業・食品等関係団体, 英・EU交渉に5つの緊急要請(EU) (欧州1番の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41.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の質の高い合意のほか, BREXIT調整準備金の活用も求める(EU) 【海外情報 令和2年(2020年) 10月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EU乳業団体, 進展の見られない英国との交渉に懸念を表明し, 英・EU間のサプライチェーンが維持されるよう要請 【海外情報 令和2年(2020年) 6月29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9.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EU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交渉が難航していることに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と懸念を表明. 「合意なし」の場合, 移行期間の延長, 代替案の措置を要求 【海外情報 令和2年(2020年) 6月1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부록 2 특색 있는 판매를 실시하는 가족경영 정육점

브뤼셀 시내에서 3대째 가족경영 정육점인 Carlos en Zonen(Boucherie Carlos)을 방문했다. 이 정육점은 브뤼셀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근처에는 고급 호텔이나 부티크가 늘어선 거리도 있다. 이러한 위치적 조건에 의해 인근 주민 외에도 근무지에서 귀가하는 회사원이나 브뤼셀 출장자들 등도 고객이 되고 있다(부록 2 사진 1, 2).

이 점포에서는 일본의 와규(和牛)와 네덜란드산 Wagyu¹⁶⁾, 현지 브랜드 쇠고기, 숙성 고기 등 고가의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전에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화우를 먹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나 현지에서 머물고 있는 주재원, 벨기에의 의료를 받으러 온 외국인 등이 많이 구매한다(부록 2 사진 3).

한편, 주력 상품은 다진 고기, 조리된 상태의 닭이나 반찬이다, 퇴근길 사람이 사는 것이 많으며, 주말에는 바비큐용으로 자른 고기도 잘 팔리고 있다.

부록 2 사진 1 점포 외관	부록 2 사진 2 점주 카를로스씨와 그 가족
	
부록 2 사진 3 점내 상품진열장	부록 2 사진 4 정육자동판매기. 발포와인이나 캐비어도 판매
	

16)일본 소인 화우(和牛)의 영어 표기가 wagyu인데, 구분을 위하여 일본산은 와규, 호주나 EU를 비롯한 일본 이외 국가산 화우종은 wagyu로 표기하도록 한다.(역자 주)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는 식당이 폐쇄된 영향으로 매출은 매우 호조를 보였
다, 2021년 이후에도 매출은 조금 감소하였지만, 코로나19 전과 비교하여 매출 호조
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육점의 특징은 정육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부록 2 사진 4).
정육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이유는 저녁 5시 폐점 후에도 신선한 고기를 찾는 고객
들, 혹은 비싼 고기를 구입할 수 고객이 있다는 점, 또 벨기에에서는 주말은 휴업일
이 되었고, 영업하는 것은 교외에 있는 비싼 대형 판매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등
으로, 주말에 사는 사람들도 매우 많은 때문이다.

자동판매기에 의한 디스플레이 효과도 있는지 거리에서 보이는 경우에 고급육을
진열함으로써 고객에게 신선한 고기의 인상이 남아 특별한 날을 위한 구매로 이어
지기도 한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

부록 3 지속 가능한 농업에 마주한 생산자

지속 가능한 농업은 앞으로도 주목받게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축산 한 사례로, 벨기에 남부의 왈론 지역에 있는 유기 돼지 생산자를 방문하였다.

(1) 개요

방문한 농가는 모돈 35두, 자돈 100두, 비육돈 250두를 가지고 있는 일관경영이다. 사양 관리는 경영주가 혼자 하고 있으며, 연간 800마리의 유기 돼지를 출하하고 있다. 또 소유하고 있는 25헥타르의 농지에서는 옥수수(10헥타르), 밀과 콩류(10헥타르), 보리 등 곡물(5헥타르)을 키우고 있다. 근처에서 독립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들도 성수기에는 도우러 온다.

농장주들은 벨기에의 회원 수백 명 정도의 유기 양돈협동조합 소속이며, 조합은 독자의 도축장 및 식육가공장을 1곳, 사료공장을 1개 소유하고, 조합원이 이용한다.

(2) 사양

가입하고 있는 조합에서 단백질 원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농장에서 생산한 사료 원료를 이용하는 자가 배합사료를 제조하고 있다(부록 3 사진 1, 2).

사육하고 있는 돼지의 품종은 LWD(랜드레이스, 라지화이트, 듀록)의 3원 교잡종으로, 1마리당 1회 산자 수는 11마리 정도로 파악되지만, 자세한 데이터는 잘 모른다고 한다.

또, 출하 당시의 몸무게로 125킬로그램을 기준으로 200일령 정도 사육하고 있으며, 이 농장은 이력 관리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3) 동물위생 및 동물복지

백신 접종으로 질병 예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병에 걸렸을 때만 의약품을 투여한다. 거세는 생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하고, 이빨 자르기(치절, 齒切)도 하지만, 꼬리 자르기(단미, 斷尾)는 하지 않는다. 이빨자르기는 이빨을 가는(치삭, 齒削) 방법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숙련되게 잘 되지는 않고, 이빨이 얼굴에 닿아 자돈이 상처를 입는 것이 고민이 되기도 한다.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모돈용 스톨¹⁷⁾을 남겨두고 있지만, 1주간에 1번, 축사 내를

17)EU의 동물복지 기준에 의하면, 돼지는 산란기에 비해 사육환경이 더욱 까다로워 어미돼지의 활동을 제약하는 스톨(금속틀)·분만틀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과 돼지 1마리당 사육면적과 밀도, 돈사의 깔짚 사용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동물복지단체들은 스톨 사육과 분만틀 사용 금지를 요구한 반면, 축산 전문가들은 원형·타원형 등 돼지의 활동을 고려한 스톨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고 분만틀 역시 새끼돼지가 깔려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청소할 때나 출산 후 1~2일간 이용하는 것이 전부이다. EU의 규제에 따라 통상은 모돈과 자돈을 같은 스페이스에서 사육하고 있다(부록 3 사진 3~5).

부록 3 사진 1 사료곡물재배포장	부록 3 사진 2 사료 자가배합 기기
	
부록 3 사진 3 모돈과 같은 공간에 있는 자돈	부록 3 사진 4 넓은 공간에서 사육되는 자돈. 옥외 접근도 있다.
	

(4) 분노 처리

고액 분리 없이 일단 돈사 아래 저장 공간이나 밖의 벅커식의 저장조에 모은 뒤 빗물을 섞어 직접 농지에 살포하고 있다(부록 3 사진 6).

국제적으로 동물복지농장의 경우 돼지의 잠자리를 마련하고, 땅을 파는 습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바닥에 깔짚을 깔도록 했지만, 동물복지단체와 우리나라 축산 관계자들은 국내 여건상 깔짚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만큼 왕겨나 톱밥 등 대체재료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축사 내 온도와 관련, 동물보호단체들도 세계적 기준으로 활용되는 RSPCA의 기준이 15~22℃ 범위지만 여름철 기온이 30℃를 쉽게 넘어가는 국내 환경과 차이가 크다며 한국 실정에 맞는 현실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출처: 농민신문, ‘스톨·분만틀 사용금지 등 복지수준 논의’, 2010년 8월 30일자 기사,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70749/view>)

부록 3 사진 5 일령별 돈군(꼬리가 달려 있으며, 구석에 옥외 출입구가 있다.	부록 3 사진 6 돈사와 분뇨거차장(분뇨거차장 저편에 콘크리트로 둘러싸은 옥외 공간이 있다
	

(5) 도축장, 식육 가공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도축장까지 생체 수송은 도축 전날 조합 트럭으로 운반되고, 도축장까지 1~1.5시간 이동 시간이 걸린다. 도축장의 처리 능력은 1시간당 50마리 규모여서 도축은 조합원에게서 출하되는 돼지만 취급한다고 한다.

이 도축장에서는 70명 정도의 작업원이 주 3회 아침 6시부터 작업을 하고 낮에는 끝난다. 도축 후에는 식육가공 및 냉동 저장 등을 하며, 내장과 껍질은 업체에 거두어가는 미미한 양을 제외하고는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다.

(6) EU의 정책과 유기축산에 대해

EU의 환경 정책의 하나가 된 F2F 전략은 들은 적이 있는 정도이며, 유기 양돈 증가에는 불안을 느낀다고 한다. EU에 의한 환경 정책을 통해 새롭게 참가하는 생산자가 늘면서 지금까지 고생하며 영농하던 기존의 생산자가 압박되는 것에 불안을 함을 느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는 이전 농장주가 납품 받던 마트가 자체 농장을 설립하여 대규모 경영을 시작하면서 맞설 수 없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농장이 출하하는 유기 사육한 돼지의 판매 가격은 일반적인 돼지 생산의 것의 2배 이상으로, 생체 돼지 1킬로그램당 가격으로 보면,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던 2021년 10월 시점에서 일반 돼지가 1.3유로(170엔, 1,751원)인 반면, 유기인 경우는 3유로(393엔, 4,041원)이다.

유기의 개념은 자연이나 환경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토지, 지역의 것을 소비한다고 하는 이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단백질 원료가 부족하여 타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할 것인가, 유기 자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자국에서 사양할 것인가 하는 추진은 그들의 이념과 다르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참고문헌

-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란’, https://www.qia.go.kr/animal/prevent/ani_birdflu.jsp
- 농민신문, ‘스톨·분만틀 사용금지 등 복지수준 논의’, 2010년 8월 30일자 기사,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70749/view>
- 임송수, ‘[특집: EU 농업정책] (제1편)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동향과 전환기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특집: EU 농업정책] (제2편)-EU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와 성과 추이’,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특집: EU 농업정책] (제3편) EU의 농식품 무역 패턴과 농업정책의 변화’,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특집: EU 농업정책] (제4편) EU 그린딜(Green Deal)과 농식품 부문의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특집: EU 농업정책] (제5편)-EU의 농장에서 포크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y)’,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코로나19가 각국 낙농산업에 미친 영향 (세계, 일본, 미국, EU, 뉴질랜드, 중국)’,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2호(2022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련, 허 덕,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1)-영국의 EU 탈퇴 후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2)-MMB 및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 유럽 우유·유제품 수급·무역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련, 허 덕,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4)- 프랑스 새로운 농업·식품법의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4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EU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 -그린 리커버리로 재검토되는 농업의 기본방향-’,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2호(2021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EUの食肉産業の展望と次期共通農業政策 ～2021年EU農業観測会議から～」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2年4月号
- 農畜産業振興機構, ‘「パンデミック下でも堅調なEUの乳製品需要～2021年EU農業観測会議を中心に～」 『畜産の情報』2022年 3월호

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委員会,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追加対策を採択. 乳製品, 牛肉などの民間在庫補助(PSA)を5月7日から. チーズは最大10万トン市場隔離へ’,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委員会, 『エコ・スキーム』として有機農業, 総合的病害虫・雑草管理 (IPM), アグロ・エコロジー, アニマルウェルフェアなどの取り組みを提案 (EU)」’,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委員会, 『エコ・スキーム』として有機農業, 総合的病害虫・雑草管理 (IPM), アグロ・エコロジー, アニマルウェルフェアなどの取り組みを提案 (EU)」’,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農畜産業振興機構, alicセミナー(2020年12月14日開催), 「EUの ‘Farm to Fork (農場から食卓まで)’ 戦略について - 2030年に向けて, 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を最優先課題とするEU農業・食品部門-, 農畜産業振興機構 (<https://www.alic.go.jp/content/001184979.pdf>)

畜産業振興機構, 農業・食品等関係団体, 英・EU交渉に5つの緊急要請 (EU) (欧州1番の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41.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の質の高い合意のほか, BREXIT調整準備金の活用も求める (EU) 【海外情報 令和2年(2020 年) 10月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EU乳業団体, 進展の見られない英国との交渉に懸念を表明し, 英・EU間のサプライチェーンが維持されるよう要請【海外情報 令和2年(2020 年) 6月29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9.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EU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交渉が難航していることに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と懸念を表明. 「合意なし」の場合, 移行期間の延長, 代替案の措置を要求【海外情報 令和2年(2020年) 6月1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

農林水産省 ‘畜産統計’

DG Agri Monthly Market Price

유럽위원회, 「EU Agricultural Outlook, for markets, Income and Environment, 2021-31」

USDA FAS 2022.1.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AC),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창조경제정책의 이해, 2014. 4. 15., 김대호, <https://terms.naver.c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Agroecology>)

미츠비시 UFJ리서치&컨설팅 주식회사 ‘월말·중순 평균 환율’
‘환율플러스 앱’